

# “회비 꼬박꼬박 냈는데 상조금이 바닥났다니”

## 한국노인회 공조회원들 부실운영 성토 “5만달러 어디갔나” 유가족들 한푼 못받아

한국노인회 공조회원들이 부실운영을 성토했다.



장했다. 신봉희(80) 할아버지는 “그동안 가입비 100달러, 연회비 30달러, 매달 상조비를 30달러씩 내왔으나 공조회 구좌는 바닥난 상태”라며 “내일 당장 죽어도 상조비 한 푼 받지 못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노인회 전부회장이었던 백춘화씨는 “회원 약 500명에게서 100달러씩 걷어 생긴 5만달러정도의 적립금은 이미 몇 년전에 다 없어졌다”며 “노인회 관 경매사태후에는 대다수 회원들이 공조회를 믿지못해 상조비도 내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지난 95년 공조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달 10일 사망한 고 추인봉 목사의 부인은 “남편은 생전에 연회비와 매월 상조금을 제날짜에 냈지만 현재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남편 전에도 3명의 회원이 사망했지만 상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노인들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회원들 전원이 다른 상조회로 옮겨가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편 노인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노인회 공조회의 공금 부실은

한국노인회 공조회원이 28일 유가족들의 회담을 성토했고 있다. <홍재철 기자>

한인 노인들 대다수가 회원은 한국노인회(회장 정의식) 공 인비(100달러) 연회비(30달

# 정회장 독단에 불신 깊어져

## 회관 경매사태 이후 신뢰 잃어 최대위기 상조회 탈퇴 회원 절반까지 늘어날수도

### 한국노인회 상조회 파동

한국노인회의 자체 상조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상조회원 60여명이 상조회를 탈퇴하고 다른 노인상조회로 옮기기로 결의한 사태가 앞으로 상조회는 물론 한국노인회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조회원들의 집단탈퇴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상조회 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380명선인 한국노인회 상조회 회원은 꾸준히 줄어왔으며 이번에는 60~70명이 대량으로 빠질 경우, 남은 회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해 탈퇴인원이 전체의 절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산세 제납으로 인한 한국노인회 회관 경매사태 이후 회원들이 상조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인회 상조회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노인회의 앞날이다.

회관경매사태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한국노인회의 신뢰성이 이번 상조회 사태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면 지금까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어른단체로 대접받아온 한국노인회

조회 파문이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사태 때 모든 책임을 카운터 정부로 돌렸던 정회장은 이번 상조회 사태도 상조회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책동으로 돌렸다.

노인회측은 나름대로 동요하고 있는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며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불신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불똥이 다른 노인상조회들에게까지도 떨어질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용택 기자



한국노인회 자체 상조회 파동을 외부의 모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식 한국노인회 회장. <이영표 기자>

## “외부인사들이 나를 모함 상조회원들 동요 부추겨”

### 정의식 회장 일문일답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노인회 상조회와 내 개인을 모함하려는 외부 인사들이 상조회원들의 동요를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받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유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1인당 100달러의 가입비는 초기

우편물 발송 등 기타경비로 쓰여진다.”

-최근 사망한 회원 6명에 대한 상조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경매사태 이후 일부 회원들이 상조비를 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사망한 4명에 대해서는 일부 상조비만 지급했고 상조비가 더 걸리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조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 독촉 공문을 발송할 생각이 다.”

타운위치



# 14년모은 상조회비 '어디로 갔나?'

## 한국노인회 또 말쟁

세금채납으로 경매에 넘겨졌다가 매입자의 배려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한국노인회가 이번에는 상조회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400여명의 회원들이 긴급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연회비 100달러와 공조회원 사망시 10달러를 불입해야하는 한국노인회 공조회는 14년동안 운영돼 왔으나 노인회관 건물의 경매위기 이후에는 회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한국노인회 공조회원들은 긴급대책모임에서 지난 14년간 부

에 고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인회 공조회 발족당시부터 회원이었던 전보배회원(88)은 한국노인회의 책임회피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긴급회의에서 정의석회장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자 일부에서는 공조회를 해체해야한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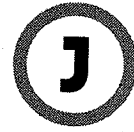
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긴급대책모임에서는 신봉희회원을 비롯한 3명의 수습대표를 선임하고 한인사회내 건설한 상조회와 협의후 단체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

불입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타운내 기존 상조회 단체가 연회비없이 400여명의 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CITY** 보험헌길 17년  
**Daniel 박**  
 License# OC69524  
 시티종합보험 (213)387-6505



# 중 앙 일

www.joinusa.com • 전화: (213)368-2500 • 제8810호

The Korea Center

# 상조회원 무더기 탈퇴

## 한국노인회 기금 바닥...60여명 집단 이적 추진

### 회관 경매사태 후유증 심각

한국노인회(회장 정의식)가 자체 상조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탈퇴를 결의하는 등 노인회관 경매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계 기사 3면>

노인회 상조회원 60여명은 28일 라디오코리아 도산홀에서 긴급 대책모임을 갖고 '최근 상조회가 회원들에 대한 상조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모은 뒤 집단으로 상조회를 탈퇴, 다른 노인상조회로 옮기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노인들에 따르면 노인회 상조회는 현재 최근 사망한 회원 6명에 대한 상조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가입비와 연회비 등 상조비 이외의 납부금마저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정의식 노인회장이 상조회 기금 운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최악에 이르렀다고 격앙된 어조로 정회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10년 이상 상조회비를 납부해왔다는 전보배(87)씨는 "그동안 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상조회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회장이 개인재산을 털어서라도 상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노인은 "지금까지 낸 상조비만 4,000달러에 이르는 데 회원이 지금처럼 자주 줄면 월금은 커녕 손해를 볼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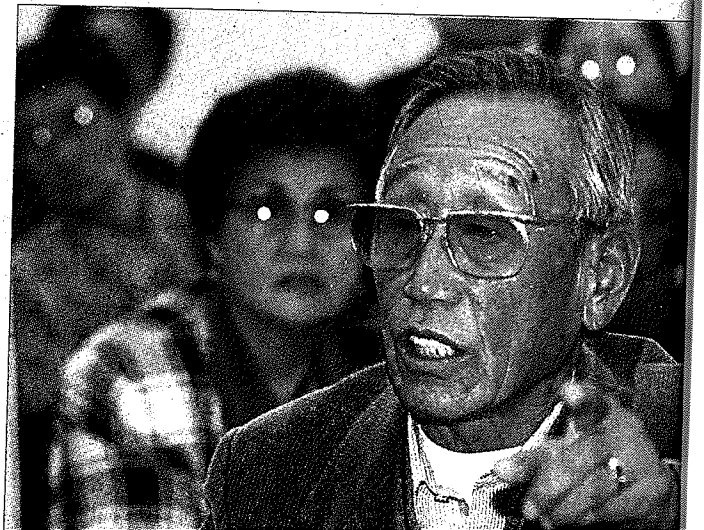
이날 참석한 노인들은 신봉희(80)씨 등 3명을 대책위원으로 선임, 다른

노인상조회로의 가입작업을 일임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노인회의 정의식회장은 "회관 경매사태 이후 일부 상조회원들이 상조비를 내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상조회 초기에 일부로부터만 받은 가입비와

매년 받는 연회비는 우편물 일반 업무경비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또 "상조회비가 이 사망한 뒤에야 걷는 것이 기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말했다.

한용택



보시 크리기 크이 디지...